

연말 구세군 자원봉사대 자선냄비 체험해 보니 ...

“1000원도 받나요?” 학생들 줄지어 용돈 기부

교통카드 충전액 모금못해 목표액 시민 성원에 달려 모금액 다문화가정 지원도 기부 내역은 홈페이지 공개

12일 광주 충장로우체국 앞 4거리. 하루 유동인구만 3만명이 넘는 광주지역의 최대 변화구로 주말이면 발 디딜틈 없이 북적대는 구간이지만 기자가 서 있는 모금함 주변은 다소 넉넉하게 느껴졌다.

구세군 광주본부의 협조를 얻어 '구세군 자원봉사대'가 새겨진 새빨간 옷을 입고 2시간동안 봉사 체험을 하는 내내 지나 다니는 시민들과 눈길을 맞추기도 쉽지 않았다. 그래서 파트너가 된 구세군 사원과 함께 더욱 열심히 황금빛 종을 딸랑거렸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이웃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웃과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내주세요'라고 목청껏 외쳤다. 영상 3도의 날씨였지만 2시간 서 있는 동안 한기가 온몸으로 올라왔다. 손은 얼어 종을 잡기도 쉽지 않았고 마이크에 대고 소리쳐야 할 입은 딱 달라붙었다. 고차 2시간인데도 발에는 경련이 느껴졌다.

구세군 경력 34년 남정수(63) 사관은 "미리 기부를 권하는 말 몇 마디를 적어와 연습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시작한지 3분이 지났을까. 드디어 첫 기부자가 등장했다. 얼마 손을 집은 나연(5) 양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요"라며 발꿈치를 세우고 5000원짜리 지폐를 자선냄비에 넣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외치며 종을 세게 쳤다. 기부에 참여하는 행렬은 많지는 않지만 꾸준했다.

결혼 3년차인 장스레이퍼(여·23·캠보디아)씨는 "날이 추워져 남편과 옷을 사러 나왔는데 모금함을 보니 고향 가족들이 생각났다"면서 "새로 생긴 고향에서의 첫 기부라 신이 난다"고 말했다.

기부에 참여해달라며 행인을 향해 '눈길 마주치기'를 몇 차례 했을거. 서너 차례 눈을 맞췄던 팽만영(19·동신여고 3년)양은 "1000원만 내도 되요?"라고 수줍게 다가왔다. 팽양이 지갑을 열자 함께 있던 친구들도 나란히 용돈을 보냈다.

시민들의 참여가 잇따르면서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구세군 자원봉사대 참여는 누구나 가능하다. 2명씩 2시간마다 교대로 이뤄지는 일이지만 추운 날씨에 거리에서 종을 흔들기 쉽지 않다. 그래도 뿌듯함에 참여한다는 게 대부분의 자원봉사자들 설명이다.

자원봉사자 김원태(19·대동고 3년)군은 "금액은 적더라도 또래 학생들이 친구 따

라 기부를 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다"고 말했다. 한양대를 수시합격한 김군은 남은 고3시기에 다른 친구들과 이 하는 아르바이트 대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구세군 봉사활동을 택했다. 현재 확보한 구세군 자원봉사자는 8명. 24일까지 매일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2인이 1팀을 이뤄 고대(2시간)를 하려면 봉사자 2명이 더 필요하다 구세군 측은 밝혔다.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액이 기대만큼 많지는 않다. 자선냄비 첫날(11일) 모금액은 54만2000원. 만원짜리 10장, 5000원짜리 13장(6만5000원)을 모금했다. 이날에는 72만6000원, 3일째는 116만원이 모였다.

광주지역의 경우 지난 2011년 2880만원(목표 4100만원)을 비롯 ·2012년 1200만

원(≈ 3500만원), 지난해 1100만원(≈ 3000만원)이 모이는 등 불경기가 심해지면서 목표액을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70년 역사를 지닌 연말 대표적 이웃돕기의 하나라는 점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형편이 어려운 노인·장애인·어린이 등을 돕겠다는 시민들의 참여는 꾸준하다는 게 구세군측 설명이다.

남정수 사관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하루 500여명이 자선냄비를 찾는 등 순탄한 출발을 하고 있다"면서도 "올해는 교통카드 충전액 모금도 하지 못하게 됐으니 목표액(1800만원) 달성은 순전히 광주시민의 성원에 달려있다"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일보 사회부 백희준 기자(왼쪽)가 구세군 광주교회 일일 자원봉사대로 나서 12일 오후 광주시 동구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자선냄비 모금 체험을 하고 있다.

‘관할 위반’ 법원 판결... 檢 거센 반발

법원 판결에 대한 검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법원이 구안법제 언도에 일각 몰아주기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해경 간부들에 대한 기소와 관련, ‘관할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이후 검찰 내 반발 기류가 거세지는 모양새다.

통상 법원 판결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던 기존과 달리, 이례적으로 “명백히 법률에 위반되는 판결”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을 터뜨린 데 이어,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비상 상고’(非常上告)까지 검토하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지검은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의 ‘관할 위반’ 선고와 관련, 대

법원에 비상상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비상상고는 확정 판결에 대해 고심판의 법령 적용 위반을 바로잡아 달라며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로, 검찰을 대표해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제기하게 돼 있다.

확정 판결이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3심제’에 따른 상소(上訴·항소나 상고)절차의 예외에 해당하고, 법률 위반을 이유로 한다는 점에서 판결 확정 후 새 증거가 발견되는 등 주로 사실관계가 바뀌었을 때 활용되는 재심(再審)과도 구별된다.

이두식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해당 판결은 명백히 법률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판결로 위법·부당하다”며 “반드시 바로잡

을 것”이라며 의지를 드러냈다.

검찰은 ‘해남지원 등 지원은 광주지법 본원의 관할구역임’을 선인하여 명시적 규정인 ‘법원조직법’과 ‘광주지법 본원의 관할은 광주시와 인근 시·군은 물론, 목포·장흥·순천·해남지원 관할구역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판결의 부당함을 바로 잡겠다는 복안이다.

검찰은 또 비상상고 외에 광주고법에 항소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비상상고의 경우 확정 판결에 대해서 허용되는 만큼 항소를 포기하고 비상상고 절차를 밟는 것보다 일단, 항소절차를 밟

아 나가는 원칙을 지키면서 추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통상적인 불복 절차 외에 ‘비상상고’까지 거론하며 반발하는 데는 세월호 참사와 연관된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 재판이 관할 논란으로 지연되는 문제제기를 통한 ‘불복’ 등을 근거로 판단이 크게 작용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칫 “검찰만 갖고 있는 기소권을 치밀하게 행사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형사 문제제기 등을 통해, 광주지검이 단호한 대응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세월호 관련 해경간부 기소 판결 광주지검, 대법원 비상상고 검토

이순신대교 이번엔 화재로 교통 통제

도로 재포장 작업 중 전기장판 과열로 불

도로 재포장 작업 과정에서 아스팔트 온도 유지를 위해 설치한 가열막 때문에 흔들림이 발생했던 이순신대교가 이번에는 가열막 대신 전기장판을 덮었다가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면서 30분간 교통이 통제됐다.

14일 오전 5시55분 여수시 이순신대교 재포장 공사현장에서 아스팔트 온도를 높이기 위해 설치한 전기장판에서 화재가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20분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이날 여수에서 광양방면 300m 지점에 설치한 전기장판(9×50m) 일부가 과열돼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10월27일에도 기존 포장을 걷어낸 뒤 5cm 두께로 ‘에폭시 아스팔트’

로 재포장하면서 온도 유지를 위해 대교 전체 난간에 가림막(길이 2.26km×높이 1.2m)을 설치, 이 때문에 외류(외오리)현상이 발생해 대교가 흔들리면서 교통이 통제됐었다.

당시 시공사인 대립산업 관계자는 “최초 국내기술로 현수교 공사를 진행했다 보니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불과 49일 만에 또다시 ‘에폭시 아스팔트’ 양생 과정에서 전기장판이 과열돼 화재가 발생하면서 시급하게 공사를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립산업 측은 “특수 아스콘인 에폭시는 40~60도의 온도를 유지해줘 양생작업을 마칠 수 있다”며 “내년 초 개통을 앞두고 이달 말까지 재포장작업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보온재(전기장판)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수원 토막살인 박춘봉 구속

수원·화성 등 4곳 시신 유기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14일 피의자 박춘봉(55·중국 국적)을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혐의로 구속했다.

국과수는 피해여성이 벽에 부딪히면서 넘어져 사망했다는 박의 진술과 달리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의 의견을 내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방경찰서는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이날 오후 박을 구속했다.

박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수원지법 천치성 판사는 “도주가 우려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는 범행 시기, 수법, 경위 등이 ‘불상’으로 기재됐지만 법원은 박이 범행을 시인한데다 증거가 충분해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천 판사는 아유러 DNA 채취 등을 통한 박의 혐의 입증에 박의 의복과

손톱, 가택 등에 대한 사전사후 압수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경찰에 “피해자 목 부위에서 졸린 흔적이 발견됐고 이는 목이 졸려 사망한 경우에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이라는 내용의 부검의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러한 부검의 소견은 전날 박이 경찰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밀렸는데 벽에 부딪히면서 넘어져 숨졌다’는 진술과 배치된다. 따라서 경찰은 박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기 위해 거짓 진술한 것으로 보고 박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수단을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수원과 화성 경계의 한 야산에서 피해여성 김모(48·중국 국적)씨의 머리와 왼쪽 팔, 장기 대부분을 발견했고 최초 사반신인 발견된 팔달산 산로에서 36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오른쪽 다리를 수습해 국과수에 의뢰, 이러한 감정 결과를 받았다.

경찰은 15일 오전부터 아직 찾지 못한 일부 시신에 대한 수색을 재개할 방침이다. /연남뉴스

허니버터칩 이어... ‘비행기 돌려세운 그맛’ 마카다미아도 품질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땡땡 리터’ 사건을 발단으로 마카다미아가 허니버터칩의 뒤를 이어 연일 매진행진을 기록.

○14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쿠팡 등 소셜커머스에 등록된 마우나 로아 제품인 ‘비행기 돌려세운 그맛’ 광주시 동구 충장로 일대 세계과자 판매점에서 매진되는 등 품귀현상이 빚어지면서

구경조차 쉽지 않다는 것.

○마카다미아는 잎 무늬 온라인 쇼핑몰에서 ‘비행기 돌려세운 그 맛’이라는 문구와 함께 판매하고 있는데, 광주 시내 D세계과자 전문점 사장들은 “뉴스에 보도된 이후 바로 매진돼 재입고하려고 발주를 신청했지만 여태 물건이 들어오지 않는다.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태”라고 설명.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7개>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아파트]					
2014타경 8521	1	나주시 대호동 75 현대아파트 103동 17층	아파트	120,000,000 120,000,000	2014타경4017 [영 1701호 84, 855㎡]
	2	서구 공호동 743-2 공호지구대주아파트 1층 12호 1205호 84.96㎡	아파트	153,000,000 153,000,000	2014타경4017 [영 1호 12호 1205호 84.96㎡]
2014타경 11794	1	북구 태극동 31-1 4층 401호 30.2693㎡	아파트	86,500,000 86,500,000	
2014타경 14540	1	서구 월드컵4동 22, 103동 12층 1209호	아파트	108,000,000 108,000,000	2014. 7. 현채관리비 [환정됨, 현대아파트] 60.0㎡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014타경 6792	1	북구 윤안동 490-27 273㎡	대	244,978,360 244,978,360	일괄매각
	2	동소 490-27 1층76.14㎡ 2층50.91㎡ 부속 건물 면적 1.62㎡ 1.8㎡	주택및점포		단독주택
2014타경 13530	1	영광군 영성면 법성리 648-29 99방 [공유지 우선매수권행사제만, 현황도로, 지분매각]	대	27,349,800 27,349,800	공유지상영해의지 우선매수권행사제만, 현황도로, 지분매각
	2	동소 648-33 3㎡ [공유지 우선매수권행사제만, 현황도로, 지분매각]	대	315,000 315,000	공유지상영해의지 우선매수권행사제만, 현황도로, 지분매각
	3	영광군 영성면 신하리 682-5 1676㎡ [공유지 우선매수권행사제만,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전	3,253,800 3,253,800	상영해의지분17만 3천여㎡ 우선매수권행사제만,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14타경 5942	1	나주시 세지면 동리리 215-17 4000㎡	답	48,000,000 48,00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4타경 9258	1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산127-4 1095㎡ [현황 도로 포함]	임야	134,123,000 134,123,000	일괄매각 [방나무, 현황 도로 포함]
2014타경 11633	1	영광군 법성면 대곡리 802-6 5187.8㎡	답	62,253,600 62,253,6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4타경 12278	1	광산구 도산동 1065-3 139㎡ [매각외주택등 소재, 전임원인 차인있으나점유여부알수없음]	대	48,900,000 48,900,000	등지매각
2014타경 12827	1	북구 충흥동 681-10 133.2㎡	대	166,137,780 166,137,780	일괄매각, 채시외 건물포함
2014타경 13820	1	북구 광양로183번길 14 1-3층라79.38㎡ 지시외 통로 14.5㎡	대	166,137,780 166,137,780	등지매각, 매각외 주택등소재
2014타경 14670	1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965 169㎡ [현황나대지]	대	4,394,000 4,394,000	
[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703 1628㎡	대	7,763,872,810 7,763,872,810	일괄매각, 채시외 건물포함
		동소 703-2 486㎡	대		
		동소 703-3 641㎡	대		
		동소 704-1 1642㎡	대		
		동소 704-2 13㎡	대		
		동소 704-4 477㎡	대		
		동소 704-5 1321㎡	대		
		동소 706-2 1177㎡	대		
		동소 703 화순읍마로 1층3068.15㎡ 2층144.2㎡	대		관내시설
		동소 703-1 410-3 2102.8㎡	대		
		북구 하서로196-6 기동 1-2층자403.20㎡ 3층36㎡ [현황임상] 제시외광장등981.9㎡, 기동기12식 [제시외건물및기동기구속목표함]	공장용지	3,633,323,720 3,633,323,720	일괄매각, 기계기구중일부확인불가능, 상, 창고
2013타경 32442	1	동소 196-6 다들 1층547.78㎡ [현황347.04㎡]	공장		
		동소 196-6 다들 1층547.78㎡ [현황347.04㎡]	공장		
		북구 양산동 410-3 1550.2㎡	대		
		북구 하서로 196-5 1층436㎡ 2층439.78㎡	대		
2014타경 5942	2	나주시 세지면 동리리 224-2 4000㎡	답	48,000,000 48,00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 고공의 부동산은 면적 표시는 실면적과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옥별매각조건
① 농지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기대수신고인이 매각물건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유예기간이 경과 할 때에는 농수선정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폐기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② 경유자가 민생협약 제42조의 약정 우선순위에 따라 그 매수신청을 할 때 농수선정보증금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농수선정보증금의 반환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계약에 다른 매수신청인이 없는 경우 최우선매각권을 보유자 우선 매수신청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4. 12. 30. [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5. 1. 6. [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방
5. 매각방법
① 입찰방법에 따른 입찰결과에 따라 매각권은,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봉투하여 봉투하여 넣는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대매각가격의 1% [100만원]에 해당하는 보증금과 더불어 2% 또는 현款的인 보증금과 더불어 1%의 보증금을 함께 제출한 문서(입찰 보증서)를 봉투하여 넣는다.
② 입찰봉투의 봉투에 봉투하여 넣은 경우엔, 입찰결과를 확정할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입찰결과에 따라 매각권은,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봉투하여 넣는다.
6. 매각사항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자가 매각물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기일결정에 확정된 매각조건과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매각조건이란 매각 대상 부동산의 면적, 용도, 지목, 지번, 기타 사항 등을 포함한다.
② 지형면적(당량기)은, 매각대금 납부자가 입찰한 대금에 산입한다. 다만, 해당기일은 지형면적의 3% 이상인 경우,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매수신청인이, 단, 도지(매각목적)에 따라 매각권은,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봉투하여 넣는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각종 지질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소멸연한이 될 때까지 매각권이나 가압류의 효력을 막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대금 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부등기 등 모든 법적행위를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매각대금 납부 후 매각대금 반환을 청구하면, 매각권은 매각자에게 반환된다. 매각대금 납부후 매각대금 반환을 청구하면 매각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8. 주의사항
① 매각의 주체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지질권 등이 설정된 납부대상 매각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권은 매각권자에게 귀속하며, 사외 자취득권자를 위한 양자인 경우 매각권은 매각권자에게 귀속하며 매각권은 매각권자에게 귀속한다.
② 입찰결과에 따라 매각권은 매각권자에게 귀속하며 매각권은 매각권자에게 귀속한다.
③ 매각대금 납부후 매각대금 반환을 청구하면 매각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매각대금 납부후 매각대금 반환을 청구하면 매각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매각대금 납부후 매각대금 반환을 청구하면 매각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⑥ 매각대금 납부후 매각대금 반환을 청구하면 매각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⑦ 매각대금 납부후 매각대금 반환을 청구하면 매각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⑧ 매각대금 납부후 매각대금 반환을 청구하면 매각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⑨ 매각대금 납부후 매각대금 반환을 청구하면 매각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⑩ 매각대금 납부후 매각대금 반환을 청구하면 매각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014. 12. 15.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원태